(기도)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배울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온데,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직분 맡겨주시고 은혜에 보답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앞에 온전하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된것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봉사의 이면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않고 생활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나아온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맞이 할수 있도록,

 또 주님을 생각함으로, 수고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 연약해지지 않고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또 후퇴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가운데서 더 힘있게 봉사하여 결실할수 있도록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둘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78과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고요,

아마 이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대부분 읽을라고 폼잡을때 항상 쉽게 읽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익숙한 부분입니다.

익숙하고 또 많은 교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가장 안되고 적용이 잘 안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목표 1번에 사단의 세가지 시험을 미리 알고 물리치는 어린이가 된다 이렇게 되있는데.

그럼 사단이 어떻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적을 알아야지 나를 알잖아요. 그를 이길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칠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는 어린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물리칠수 있는건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교훈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된 그런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유인물 보겠습니다.

마귀 시험하는자 사단 이렇게 되있는데 뭐 사탄 사단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러스, 디아는 ~사이에 ,블러스는 던지다 라는 뜻으로 비방자 훼방자 영어로 Devil 이렇게 되있습니다.

마귀의, 디아블러스라는 말은 마귀의 역할을 강조하여, 하나님과 인간사이를 이간질 하는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약 37회 사용되었다라고 되있는데요, 디아블러스 라는 게임도 있죠, 디아블로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참 이런 마귀 내용들이 우리랑 친근감있게 많이 다가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볼수 있는것은 비방하는 사람은 마귀편에 속해 있는 것이며 마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운데 수군수군하고 (---중간에 말소리 나오지 않음-아예묵음-) 나온 뜻이 아닙니다.

전부다 마귀편에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헬라어로 디아블러슨데, 히브리어로는 사탄 마귀의 신분을 강조하는 용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공격하다, 대적하다 라는 뜻으로 신약에서 약 36회 사용되었고,

이 단어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대적자 혹은 선교들의 원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잠깐 생각해볼수 있는것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가,

즉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편에 서 있는지, 망하게 하는 편에 서 있는지,

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행동하는거 하나하나가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것이 정말 주님편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편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요,

그걸 우리가 그런데에 민감하게 참 언행을 주의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마태복음 4장1절에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것이 우연히나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였다 라는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때 전부다 뭐 마귀에 의한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수도 있다라는 거고,

2번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있는데요, 여기 시험이 tempted 이렇게 되있죠,

유혹받는 걸로 되있습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 Test 하지만 , 마귀는 악을 행하도록 시험한다, temptation,
유혹한다라는 거죠.

2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기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있거든요, 이건 test다 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는데, 그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본 겁니다.

이제 이 test를 통해서 진실이였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행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자 이 시험이 유혹이다 라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써있는 말들은 전부다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보시면 될거예요, temptation과 관련된

말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은 주로 test로 나타나지만, 사단에 의한 시험의 성격은 주로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양자를 구별하기에는 그 기준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은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이며,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의 순종 여부를 알아보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그 어떤 유혹과 사탄이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다들어와있다라는 겁니다.

유혹하지만 믿음의 범위 이상으로 유혹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이런거 보면은 우리가 유혹받을때 분명히 내가 이길수 있고 피할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라는걸 우리가 더욱 알수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 피할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리칠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라고 되있는데,

사십은 성경에서 고난과 인내와 완성의 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때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었고, 엘리야가 광야에서 40일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이란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뭐 광야 40년, 이런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절박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누가복음 4장 2절에 되어있는데,

이렇게 굶주려 있었을 때 시험했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먹을거 줄까라고 유혹하면 그걸 누가 걸려 넘어지겠어요.

그래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시험을 한겁니다. 4장 3절(마태복음),
마태복음 4: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40일, 사실 뭐 하루만 , 하루가 뭐예요, 한끼만 굶어도 정말 그 다음 끼가 굉장히 간절히 기달려지는데, 전 사실 하루도 안굶어 봤습니다.

근데, 어휴, 사십일이라..

근데, 이제 그럴때 시험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말 있죠, 삼일 굶으면 도적질 안할 사람 없다는 거.

그만큼 굶주림이라는 건 사람한테 굉장히 절박한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이 피할길을 본능적으로 찾도록 유혹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하는 자가 말했습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이며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아무 고사할(?)곳에(?) 틈이나 허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계속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어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세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위해서 ,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죠.

그가 다시 회복될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잠깐 생각해 본게요,

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형제나 자매를 넘어뜨리지 말아야 겠다.

형제 앞에 거칠것을 두면 안되요,사소한거라도 거칠걸 두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길을 펴고, 낮은건 매우고 높은건 무너뜨리고 하면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런걸 해야되요.

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내가 해야되요.

뭐 냇물 건너야 된다그러면 내가 뭐가 될래요, 그 가운데 있는 돌을 뭐라그러죠, 머릿돌 말고, 뭐라그러죠? 디딤돌.

그런게되야되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어 나하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로 행하면서 다른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일 이라는 단어는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시험할때도 사단을 세 번이나 계속하여 만일 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만일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없는 것을 만들어 상상케하고, 또 오해케하고, 이간시키며, 나뉘게 한다.

애들한테 만일이라는 말을요, 잘 사용하면 안되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정~말 믿어?” 어 그럼 애들이 주눅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믿음을 막 흔들리게 하고 막 불신케 하고 그런걸 하면 안되요.

 사단은 교묘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떡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면서 , 떡 못만들면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런거죠.

하나님 아들인데 떡도 못만들어? 어 그러니 참 열받잖아요,

이놈이 날 뭘로 아는가. 그럴수 있잖아요.

자 떡을 만들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은,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넌지시 비추면서 이 아들의 능력을 행사하여 굶주림을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림 채워라. 그래서 내가 필요할땐 내가 임의로 능력을 사용할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돈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제안 뒤에 숨은 동기는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하고.. 그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러한 유혹을 육신의 정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했던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 참으로 그러니까, 또 그냥 약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유혹을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괄호안에 신명기 8장 3절이라 써있는건, 거기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록되었으되도 3번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의 유혹을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예요.

저희도 기록된 말씀에 익숙해야지 물리칠수 있습니다.

야 술먹으란 말이 어딨냐 (정정) 술먹지 말란 말이 어딨냐 .

어 그런말 없지. 그렇게해서 그냥 먹자 그러면 되겠어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말씀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셨는데 건배하면서 마시는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거냐.

위하여 하는데 그게 누굴위한 거예요.

그러자나요,자기,자기를 위한거죠.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치관과상식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그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도 모르고 성경의 흐름도 모르면 그냥 뭐 그런가하고 또 어떨결에 한잔하고. 그렇게 되면 안되자나요.

2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을 얻는것은 삶에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부하려하는 자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부한 자들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믿음에 성장하고, 말씀에 부하려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것이 마땅할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 소망을 두고 돈에, 재물에 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상에서 되는데로 살라는건 아니죠.세상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집안 다 가족들 그냥 별로 신경 안쓰고 교회당에만 와서 성경보고 막 그래요,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진 않느냐.

어 다른 사람보곤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고 이러면서 나는 비정상 적인 생활을 하면 안되잖아요.

어떤 뭐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고급, 좋은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현재 할수 있는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되요.

그것이 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월급 조금 받는 작은 일이라도, 일단은 내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그영역에서 더 확장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축복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거 무시하면서, 내가 다른 하나님 일열심히 한다.

그거는 위선이예요. 세상일도 열심히 하는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삼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되있는데 부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예요.

성경 전체를 잘 익혀야 하고 가감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다 라고 되어있죠.

마태복음 4장 5절6절에 보면, **5.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어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거) 시편 말씀이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있는데요,

자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상대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모든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자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단의 시험에 또다른 말씀으로 물리칠수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창조를 못하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께 속해있기 때문에,

있는거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 말씀가지고도 막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잘 알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죠. 아볼로(?아볼라?)라는 사람이 굉장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잖아요 ,

만약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몰랐으면, 그거 뭐 이게 말해가지고 아볼라한테 져서 전도 못했을꺼 아니예요. 그런데 그 능했던,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던 아볼라 보다도 더욱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굴복시킬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그냥 어정쩡하게 대충대충 아는것 보다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아는게 중요합니다. 힘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는 무기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에 익숙해야 되요. 그 코미디 영화같은데 보면 적 나타났는데,

총 쏠지 몰라가지고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총 있음뭐해, 쓸줄 모르는데. 여러분 군대 처음 갔었을때 총 잘 못다루자나요.

가르쳐 줍니다 총 잘 쏠수 있는 방법.

영점 조절하는 것도 잘 가르쳐줘요.

잘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잘 배우면 익숙해 져요

. 그러면 사수로서, 총을 쏘는 사람의 입장에서 총을 잘 쏠수 있어요.

훈련도 잘해야 되고 그위치도 그 역할에서 이제 잘 할수 있게 됩니다.

저는뭐 총은 잘 안싸봐갔고, 잘 할줄 모르는데요,

하튼 그 군사는 자기 무기에 익숙해야 되요. 자기무기.

그래서 자기 무기에 익숙한 사람 ,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무기.

그렇죠, 다윗. 물멧돌로 그냥 그 골리앗을 넘어 뜨렸자나요,

아주 물멧돌 별거 아닌건데도, 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사람은 그러죠,

그거갖고 뭐하겠냐.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네가 개잡으러 왔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도,

그 거대한 거인도 물리칠수 있었던 거예요.

그니까, 작은 거라도 혹은 내가 말씀 아는게 작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적용을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칠수 있어요,

이 성경에 익숙해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한번 듭니다.그리고 자기 역할도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아니 총만 잘쏜다고 ,

지휘관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자나요. 1번사수,2번사수,3번사수 있는데, 자기자리에서 자기 과녁을 쏴야하는데 엉뚱한 자리가있으면그 저기한테 혼나요 안혼나요.

그건 정말 총솔때, 자기자리 잘못가있으면요, 그건 되게 얻어터집니다.

그렇자나요, 자기자리에서 자기 목표를 잘 쏠수 있어야 되요.

요번에 그 올림픽때 황당한 사람 있었죠, 금메달 놓친사람.

아니 자기 과녁 쏴야 되는데 딴데 쏜거에요.

한참 기다렸는데 표시가 안나자나요,그거 이상하다. 딴 사람들도 이상하다,

그사람이 일등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다이상하다이상하다. 보니까 남의 과녁 쏜거예요.그래서 금메달 못땃자나요. 그렇자나요? 빵점. 자기 무기에 익숙하고, 또 잘 쏠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요.또 자기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 하는것이 정말 중요해요. 할수 없는 기이한일을 하기 위해서 힘빼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부흥을 일으켰죠, 영적 대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다니엘도 재주와 학문에 익숙했다 라고 되어있고, 아볼로도 익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복음(>?) 몰랐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 배워서, 주님앞에 크게 쓰임이 됐습니다.

스펄전은 그 정식 학벌이 없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디도 초등학교 중퇴였습니다.

아이언 싸이 도 중학교 중퇴고, 캐리는 동네 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데요.

제가 요세 윌리암 캐리의 전기를 읽었거든요, 그 생애 이케 나온거?

근데 요즘 말로 따지면 동네 서당 다닌거예요, 초등학교 정도 다닌거죠.

그래서 읽기 쓰기 정도 할수 있는, 그것 밖에 못배웠데요.

존 번연도 그랬자나요, 읽기 쓰기만 배웠자나요

존 번연도.. 야 그래서 존번연은 땜장이고, 직업이, 무식하고 막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존 번연이요, 그 천로역정 쓴 분이예요.

생애에 약 60여권의 책을 썼데요. 한 사람이 60여권의 책을 쓰는게쉽지않거든요,

대단하죠. 존 번연의 책 .

어떤건 막 너무 부피가 컸데요, 부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르는 것도 너무 힘들었데요.

그정도로 쓴거예요.

주로 감옥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런걸 그렇게 많이 썼을까. 이게 참, 베드로는 어부였자나요,

어부들이 많았자나요사도들 중에서.

내가 못배웠다,

무식하다 그걸로 만약에 나의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게 생각하면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거 같아요. 내가 학문이 없다 무학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등한 생각을 가지고 ,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사람은 정말 어리 석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주 안에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디엘무디 뭐 무식하다 그래도요, 디엘무디의 책을 보시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게 어부의 글이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해야되요, 주님안에서 공부 해야되요.

예수님은 고난 없이도 영광을 취할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치고 왕위에 도달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군중들은 예수님이그의 사자들을 통해 보고받는것을 알았다면, 단번에 메시아로 환영 받았을 겁니다.

 뭐 오병이여 그랬을때, 왕 삼을라 그랬을때요,

그때 딱 등장하면 뭔가 되지 않겠어요. 오병이어로 성인만, 성인 남자만 5천명 먹었으니까.

애들뭐 아줌마들 다 따졌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 구름같은 군중들을 몰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막 오병이어 혹은 풍랑을 잠잠케 할때 막 태풍치고 번개 칠때 막 그런거 치게 해가지고 사람들 쫙모아놓고 함 봐라 그래서 한번 쫙 세우면은 평정,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메시야라고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이러한 행동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에 있던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닮았는데,

둘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개인의 영광을 성취하는 수단이였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것을 떠나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을 높일때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요한도 많이 따랐자나요,

네가 그냐 그랬을때 당연하지 그랬으면 그가 굉장히 높임받을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지킬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일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학문 적인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되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이야기 막 증거할 때 ,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니까 배운 사람들은 그사람,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정말 배운 사람이였다는걸 알았을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저사람 정말 공부좀 많이 한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 라는걸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이렇게 평범한 성도들 앞에서는요,

아주 굉장히 바울이 조심했어요.

자기 자신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되겠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드러나는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요.

그렇다고 뭐 아무일도 안하라는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

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되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께서 메시아를 보호하겠다고 일찍이 말씀하셨지만,그러한 보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것을 전재로 했습니다.

전제가 이상하네 그렇지아나요(??) 불신적인 행위를 보이면서, 약속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험해 보십쇼, 정말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도와 줄꺼다, 그분이 보장해 주신다,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죠? 숯불을 딱 밟고서 나 안디어 그런 사람 바보죠.

우리 성경강연회할 때 자료 보자나요, 지가 예수인척하고 물건너다 죽은거 나오자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실거다, 내 안전을 보장해 주실거다,라고 말해야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거 얘기하면 안되자나요.

 하나님 안속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린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안속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겉의 모습은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주님은 안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력을 시험할 때 정말 순수한 의도대로 한것이 드러날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생각이 들어갔다그래서 일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자나요.

아까 이렇게 뭐 칠판에 좀 적어봤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런것도 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자나요.

그들이 열심히 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막 어렵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존번연 글에 보면요, 이제 그 사역자로서 일을할 때 다른사람들이 이제막, 마귀가 막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 너도 못하면서 뭘하냐, 너도 못하면서.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뭐 거룩을 외치냐. 네가 죄가 많은데 왜 죄를 외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거예요.정말 내가 죄가 많은데, 정말 죄가 많은데. 이제 다시 마음 바꿔가지고, 내가 죄가 많더래도,일단더 날카롭게 전하겠다.

 그리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겠다. 이게 정확하진않은데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마귀가 말하는걸 물리칠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되있는데요.

혹 내가 잘 못살고,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앞에 열심히 살려그래야됩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거지, 내가 판단하는게 아니잖아요.

내가 재판장입니까? 다른사람을 판단하고 이런것도 좋지 않지만요, 자기자신을 판단해서 자학하는것도, 학대하는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해요. 다른사람을 판단하는건 교만이라그래서 잘 안하는데, 내가 내자신을 막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를 판단하는건 누구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자나요.

그런말씀이 어딨죠? 주님이 판단한다고? 어딨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주님이 판단하신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세우시는 권능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세우고자 하는데섰는것이나 넘어지는것이 주인의 손에

달린거지 그거 내가 하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나 세우는 것도 역시 주님이 세우잖아요.

 나를 내가 세웁니까,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자나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너무 자학해요.내가뭘해요내가뭘해요아나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너무 뒤로 빼면서 일 안할라 그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수 있어요.아 주님이 하라그러면 하는거지뭐. 그렇지 않아요?

 못해요 그런게 어딨어요, 하라그러면 예 하고 하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그러면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무슨일 하든지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하면. 마태복음 4장 8,9절에 보면

8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단은자신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제안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안목의 정욕에 호소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은 두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 헛된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파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는데, '더'자는 말을(정정) '더'라는 말을 집어넣는게 맞을 거예요.창조주도 섬기긴섬기는데 좀 덜섬기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영광, 안목, 눈에 좋아보이는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하루 열심히 살면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빛과같이 별과같이빛날텐데 육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내 오늘 하루의 인생을 허비해버린다면, 영원한것하고 바꿔보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한근 살려고 소한마리 팔면 어리석은 사람이자나요, 장자의 명분, 하나, 팥죽하나에 팔아먹은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그렇게 확장시켜서 적용해 볼수 있는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혹은 그 영적인 생명, 그것과 관련된 시간 이런걸 허비할수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말씀을 인용한거죠. 사단에게 경배하는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이런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직면한 시험들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삶과 우리의 삶의 시련과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우리는 이 3가지 시험에서 실패하는가 혹은 시험을 이기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자 시험을 이긴 이후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물리치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 조용히 찾아오기도 하지만 거센 물결처럼 찾아올수도 있다.

적이 홍수처럼 밀려올때에 여호와의 신이 적을 향해 군기를 세우실 것이라 이 말씀이 시험 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경계가 됩니까.

홍수처럼 몰려올때도 주님이 딱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홍수처럼 몰려올때도.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아무리 죽일라 그래도 또 우상숭배하는 적들이 엘리사를 아무리 죽일라 그래도 하나님의 군대는 보호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유지 가운데서 시험받을때 얼마나 담대할수 있는가 용기를 얻을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성경의 지배르 받는자를 공격할수 있다는 걸 알수 있어요,

마귀가 항상 그러자나요,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뭐 우리 공격 안하겠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자들 앞에서는 무기력 하다라는 걸 배울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되고 또 지식의 말씀과 지혜

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시험을 못이긴다면, 어떻게 다른사람을 도울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수 있어야 됩니다.

개괄적으로 빨리 살펴본다면, 사람은 다 시험받습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다 시험 받았고, 다윗도 시험받았고 우리도 역시 시험받는다.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배의 견고함과 튼튼함은요, 폭풍우를 만났을때 더욱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참된 믿음은 시험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합당한 구세주다라는 것이 드러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참된 믿음은 시험가운데서 더욱 드러날 것이다.

3번 , 첫 사람 아들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제 이기셨죠, 실패한걸 이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그래서 이3가지 영역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신명기의 3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 받을때, 잠깐 , 성경책을 펴가면서 그거 어딨지라는 말 하지 않았자나요.

그죠 즉시 암송으로 나오는거죠? 암송으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암송에 익숙해 져야되요. 암송에, 암송 많이 하실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 3가지로 세상 사람을 유혹하며 그리스도인도 이 3가지 시험으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육신적인 것에 맘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나를 높이려는 어떤 모습도 합당하지 않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참 안타깝죠,

한때는 충실하게 사역했는데 결국 떠났다라는 것이 세상은 정말 강하다라는걸 알수 있었고 대마가 끝내는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5번,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있죠?

마귀는 시험거리가 있을때 나아와서 시험합니다.

뭐 굳이 유혹해서 안넘어갈때에만 유혹할 필요는 없자나요.

마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간을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잠시 떠났고 그 이후에 계속 유혹했습니다.

겨울에 남방을 아무리 떼도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방안이 써늘해 지자나요?

그런것 처럼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극복했다고 섰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떤 똑같은 시험은 계속해서와요, 내가 이 시험 물리쳤다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시험을 물리쳤다그래서 다음에 그 시험이 안오느냐 반복해서 계속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험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뭐 동일한 시험 하나, 어떤 시험 하나 물리쳤다고 난 괜찮다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넘어질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항상 입어야 하며 더욱 튼튼해 져야 할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 기록되었으되에 충실해야 하며 하나님 우선주의, 영혼 우선주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제일 주의여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요,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내가 길을 모르고 막 답답하고 그럴때는요, 혹 신앙의어떤 선배들

,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경험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거죠, 그게뭐 괜히 자존심 상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는 잘 안물어보는거 같아요.

물어보고 생각하면 좋은데, 안물어보고 이미 일 저질러놓고 나중에 안되면

원망해요.

 사람은 미련해서 자기길 굽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원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자나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범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교제하고, 이 좋은 분들 주셨자나요?

항상 교제하고 의논하고 일을 할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안전한 길을 갈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다, 그러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고, 그것을 가르칠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이런거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의 의심이 들때 이런 말씀이 내게 구원의 의심을 없애게 해 주었다,

 그런것도 좋잖아요.

자 그런 경험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해줄수 있어요.내가 알지 못하는 일만마디 방언 보다는요,

내가 확실히 깨달은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우리가 미리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물리쳤으니까 말씀에 익숙해 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배울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묵상하므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행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또 무지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이 잊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함께 교사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일일이 그 생활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쓸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

또한 하나님 말씀에 능한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이 말씀에 부한 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